

MBC 사우회 창립 35주년 기념 단합대회 날마다 즐거운 꿈을 심으며~ 다시 불러본 MBC, 문화방송



올해로 창립 35주년을 맞는 MBC 사우회 단합대회가 5월 14일 양주문화동산의 인조잔디 운동장에서 열렸다. 화창한 날씨 속에서 고창근(ANN) 사우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전국에서 모인 161명의 회원과 본사 임직원 등이 참여해 국민의례에 이어 MBC 사가를 다 함께 부르면서 시작됐다.

양영철 사우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우회 35년의 무게와 존재감을 만들어 주신 선후배, 동료 여러분에게 감사한다”면서 “따뜻한 우정과 신뢰를 마음에 새기며 쌓인 회포를 푸시라”고 말했다.

안형준 본사 사장 대신 참석한 박미나 경영본부장은 사우회 창립 35주년을 축하하고 “본사가 5년 연속 흑자경영을 유지하는 가운데 시정자 평가지수에서 1위에 올랐다”면서 “대선 방송도 신뢰도 영향력 1위 방송사 위상을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본사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MBC 전성기 시절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을까? 를 종종 생각해 보게 된다”고 한 안형준 본사 사장의 말을 상기시키면서 “그런 선배들의 존재가 후배들에겐 너무 든든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박 본부장이 후배를 품어주고 미래를 향해 같이 나가자는 축사에 이어, 차인태

사우회 고문이 ‘MBC 사우회 발전’과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사우들의 건강’ 등을 위한 건배를 제의했다. 사우들은 편제, 보도, ANN, 기술, 업무, 관리, 관계사 등으로 나뉘어 야외 슷볼 이동갈비와 술로 점심을 나누면서 2시간여 동안 서로의 건강과 안부를 물으며 추억을 나누고 대화의 꽃을 피웠다. 또한, 부문을 오가면서 타 부서 사우들과 옛정을 나누는 모습도 눈에 자주 띄었다. (2면에 계속)

양영철 사우회장 안형준 본사 사장 방문

양영철 사우회장은 신임 인사차 4월 15일 MBC 본사를 방문해 안형준 사장과 환담했다. 양회장은 방송광고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MBC가 흑자 경영을 시현하고 있는데 대해 안사장의 공로를 치하(致賀)했다. 양회장은 이어 이날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예방하고 방문진이

MBC의 안정적인 경영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대해 사의(謝意)를 표명했다. 양회장은 4월 10일 허원제 정수장학회 이사장도 방문했다.



www.fbc.or.kr



MBC와 늘 함께하는 방송문화진흥회는 품격있는 방송문화를 만들어 나갑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MBC의 관리감독기구이자 대주주로서
MBC가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최고의
공영방송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우리나라 방송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콘텐츠진흥, 학술지원, 사회공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합대회 이모저모



단합대회 현수막/차인태 고문의 건배 제의

국민의례/축사를 하는 박미나 경영본부장

인사말을 하는 양영철 사우회장/포천 이동갈비

본사 간호사의 건강체크/ 본사경영본부 임직원

1년에 한 번,
우리만의 시간

웃음이 가득한
재회의 순간

맛도 정답,
사람도 정답

회포는 풀고,
추억은 쌓고



이번 단합대회에 처음 나왔다는 이보경(보도) 사우회는 “그리운 얼굴들과 함께한 점심 한 끼가 기분을 좋게 만드는 듯하다”면서 “처음이라 서먹하면 어떻게 하지 걱정했는데 막상 참여하고 나니까 만남은 여전히 따듯했다”고 즐거워했다.

MBC-TV 개국 1년 전인 1968년에 입사한 김은식 사우(업무)는 “사우회

의 끈끈한 정이 갈수록 떨어 지는 듯 해서 안타깝다.”고 했다. 옆에 앉은 88살의 최우형(업무)사우회는 “내 위로 는 거의 돌아 가시고 우리가 최고령”이라며 미소를 지으신다.

매년 참석한 한 사우회는 “불참하는 핑계는 100 가지도 넘겠지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행복하다”고 해 주위 사우들로부터 공감을 얻었다.

이곳 저곳 불판에서 피어오르는 구수한 갈비 연기처럼 모든 사우들의 정도 피어오르고 추억도 익어갔다. 이날 단합대회에는 장명호 전 사우회 회장, 신대근 전 대구MBC 사장을 비롯해 MBC-경향신문 통합 1기 최노석 전 경향신문 사우회장, 황우연 현 경향신문 사우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올해로 35주년을 맞는 MBC 사우회는 지난 1990년 5월 18일 창립했다. 회원 수는 5월 현재 1,265명이다. 사우들의 연락처나 가입 문의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사단법인 문화 방송 사우회」 홈페이지에 있다.

단합대회 사진
<https://photos.app.goo.gl/P5fb2oyRW3JfuVJf7>



2025 사우회 낚시대회 “강화수로에서 잡은 43cm 역대급 대어”

2025년 사우회 낚시대회가 4월 25일, 강화군 화도면에 위치한 선두포 수로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회원과 진행요원 등 총 17명이 참가했다. 날씨는 맑았지만 해가 뜬 이후 바람이 많이 불어, 일출 전부터 출조한 일부 회원을 제외하고는 조황이 좋은 편은 아니었다.

대회 결과, 1등상은 붕어 43cm를 낚은 김기화 회원이 차지했으며, 2등상은 33.2cm를 낚은 강정수 회원, 3등상은 15cm를 낚은 정복근 회원이 각각 수상했다. 행운상은 31cm 누치를 낚은 송재선 회원에게 돌아갔다.

참가자들은 이번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한 43cm 붕어를 “역대급 대어”라며 입을 모았다. 김기화 회원은 낚시 경력 30년의 베테랑으로, “대어는 조심성이 많아 쉽게 낚이지 않는다. 입질이 오더라도 확실한 순간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회가 끝난 후에는 인근 식당에서 닭볶음탕으로 점심을 하며 화기에애한 시간을 보냈고, 내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다짐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1등상 김기화 회원과 양영철 회장

붕어 계측 장면

AI시대, 늦은 시작이란 없다

MBC 사우회의 올해 중점 사업인 맞춤형 AI 무료특강이 본 강의를 제안한 이재은 사우(보도)등 20여 명의 사우가 참여한 가운데 정동 사우회 사무실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달 24일 첫 강의를 시작으로 매주 하루 2시간씩, 4주간 총 8시간에 걸쳐 진행될 이번 특강은 사우들이 일상에서 AI를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단기 AI 마스터 과정으로 마련됐다. 오픈 AI의 Chat GPT 실습 교육에 나선 두 번째 주 강의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근로자의 날이었던 이달 1일 오후 2시, MBC사우회 사무실에 모인 20여명의 사우들에게 '모든 정보기술' 대표인 김용조 강사(전 한국도로공사)는 "5월을 예찬하는 시를 써줘~"라는 실습

제목을 제시했다. 사우들은 스마트폰의 ChatGPT 계정에 들어가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게 좋다"는 강사의 말에 따라 각자의 취향에 맞게 만든 질문 문장을 입력했다.

잘 된 시인지 아닌지 둘째 치고, 시를 만드는 속도가 전광석화 같다. 시학(詩學)을 논한 아리스토텔레스가 보면 뭐라고 할까? 사우들도 각자 Chat GPT로부터 받은 시를 읽으면서 내심 감탄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강사는 두 번째 실습으로 "아이디어를 도출"해 보자면서 부제를 달았다. "Z세대(18살~24살)의 지속 가능한 패션 브랜드의 소셜 미디어 캠페인 아이디어 5가지를 만들어줘". 그러면서 그는 도공이 도자기를 빚듯이 ChatGPT

가 첫 답을 하면 거기에 그치지 말고 본인이 만족할 대답이 나올 때까지 묻고 또 묻고 또 물어가며 질문을 다듬어야 한다고 했다.

자신감이 붙은 사우들은 세 번째 실습 제목, ChatGPT를 이용하는 횟수가 가장 많은 '여행계획'을 제시하자, 손놀림이 더 빨라졌다.

특강에 참여한 김기수 사우는 "AI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지만 AI를 모르면 생활에 불편할 것 같았다"면서 "핸드폰도 능숙하게 다루고 이런 AI도 배워 두면 좋을 것 같다, 배움에 늦은 나이가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또 다른 사우는 "지금까지 필요한 정보를 네이버 등을 통해 일일이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AI 하나면 다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사우의 눈높이에 맞춰 특강을 이끌어가는 김용조 강사는 "AI와 친해지려면 AI에 관한 관심과 반복 연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4회차까지 교육을 받게 되면 AI에게 건강상담, 심리상담을 받는 건 물론이고 AI를 똑똑한 개인비서로 두고 나만의 자서전을 쓰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AI앞에서 흔들림 없는 집중력



2차교육 모집 AI, 나도 할 수 있다! MBC 사우회원 맞춤형 AI 무료 특강

- 일시 : 2025. 6.2 / 6.5 / 6.9 / 6.12 (총 4회)
- 교육 시간 : 19:00 ~ 21:00
- 교육 방법 : 온라인 ZOOM 수업
- 교육 인원 : 40명 내외 (※조기 마감일 될수 있습니다)
- 교육 내용 및 시간표 : 2차 교육계획(안) 참조
- 준비 사항 : PC나 노트북 또는 태블릿에 ZOOM 설치, 스마트폰으로 실습(*추후 카톡으로 안내 예정)

문의 ☎ 02-722-7416

“특강에서 만난 사우”

- 재능기부의 달인 박승규

자신을 낮추면 천 리 밖에 있는 사람도 불러온다지만 사우회 AI 특강에 나온 박승규 사우는 반대다. 자신을 더 낮추고 기존 방송사들로부터 외면당하기 쉬운 사람들을 자동차 기름값, 고속도로 통행료 등 일체의 경비를 자신이 부담하면서 천 리가 멀다 않고 찾아간다.

그래서 그들을 인터뷰하고 영상물을 만들어 개인 유튜브인 "이슈 앤 프로세스 (ISSUE N PROCESS)"에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올린다-차라리 헌정이라는 표현이 맞을 듯하다. 만약 2백 년 뒤에 누군가 이 유튜브를 타임머신처럼 열어 본다면 새삼 놀라게 될 것이다. 일반 방송사가 눈길을 주지 않았어도 우리 사회 곳곳에 훌륭한 사람이 많았다는 역사적 사실 앞에 말이다.

“왜 지속하기 어려운 일을 하느냐고요? 재능기부니까요.” 그는 MBC를 퇴직하면 자신이 받은 은혜를 사회에 환원하고 싶었고, 무료 자원봉사, 즉 재능기부를 그 수단으로 선택했노라고 말했다. “촬영하라, 편집하라, 글 쓰라, 제목 뽑으라, 자막 넣으라. 혼자 북 치고 장구 치고 있으니...” 그는 앞으로 AI에게 영상 콘텐츠 제목을 뽑고, 글쓰기 도움을 얻어 영상 콘텐츠를 고급화시키겠다고 한다. 주변에 추천해 줄 사람이 있다면 그의 번호(010-5385-3442)를 슬쩍 전해줘도 좋을 듯하다.



영상기자 김선규의 귀촌 생활 취재(경기 화성)



공황장애 뮤지션 취재(설악산 대청봉)

인사동클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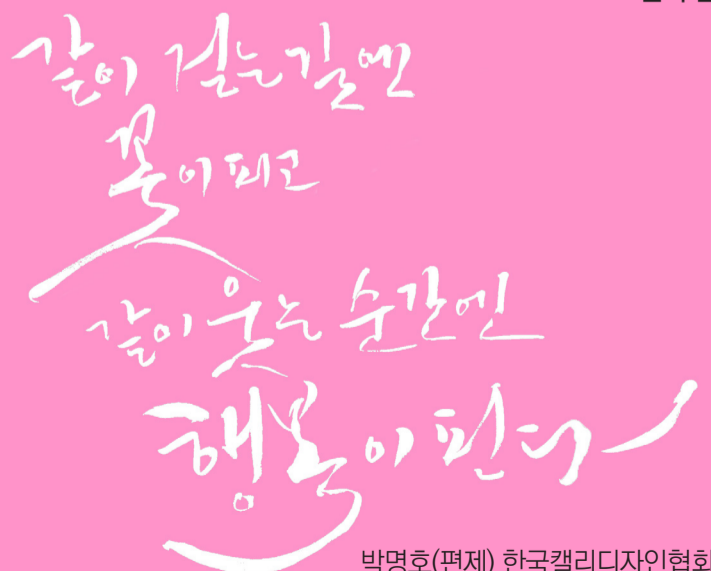
- 동호회 동정

라디오 출신들의 모임인 인사동클럽 (회장이건세)은 지난 5월 12일, 광화문에 있는 안성또순이 집에서 정기 모임을 가졌습니다. 장명호, 김일수, 우종범 등 12명이 참석한 이번 모임에서는 그동안 회원들의 소식을 나누었고, 소설가인 박찬순 회원의 신작 공동창작집 「각자의 방식대로 밤을

쓰다듬는 손」출간을 축하 했습니다. 다음 모임은 10월 13일 같은 장소에서 갖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캘리



박명호(편저) 한국캘리디자인협회 감사, 저서: 『캘리아 놀자』

BRUNCH STORY
by 김승월

찬란한 슬픔의 봄나들이

사는길과 죽는길은 하나다

류근중 사무처장과 송원근 사주의 병원 방문

날이 갈수록 아내의 잔소리가 심해 집니다. 쪼잔해지기까지 해요. 근데 속상하게도 아내의 말이 들어 맞거나, 예측하는 신통력을 보입니다. 이번 봄나들이에 나서는 서방에게,

“당신도 이제 70대야. 뛰어다니지 말고 살살 움직여. 내 말 듣는 게 당신 사는 길이야,” 라고 내가 젊은이처럼 뭐 좀 하려 할 때마다 날갯죽지 꺾이는 소리를 해대니 그때마다 저는 씩씩대곤 했죠. 그런데 이번엔 아내의 말이 적중했습니다. 주문처럼 나를 걸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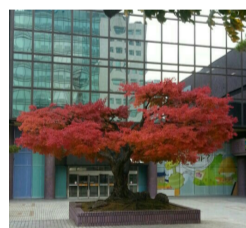
MBC 사우회보 편집장으로서 기고할 <인생 2막> 을 취재하러 용산에서 기차 타고 충청남도 논산 양촌마을, 계백장군의 황산벌 유적지 부근으로 향했죠. 여수 MBC 사장을 지낸 송원근 사주를 만나기 위해서 말이죠, 20년 전 자기 고향 땅에 해마다 500여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고 말한 게 머리에 남아 있었는데 마침 제가 좋아하는 선배 한 분이 사우회보에 송원근 같은 별난 인생을 소개해 보면 좋겠다고 추천해서 곧바로 실천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송원근 씨가 주저하는 거예요. 예감이 불길했는지, 요즘 농촌 현실을 보면 은퇴자가 나무를 심거나 농사짓는 게 절대 불가하다는 겁니다. 인건비가 너무 올랐고 일손 구하기조차 힘들다네요. 한사코 말렸지만, 저는 한 시절 라디오 PD질 좀 해봤다고 모른척하며 밀어붙여 서둘렀던 것이죠. 계룡대 역에서 송 사장 차로 삼십 분 만에 도착한 농장은 “닭이 양 날개를 펼쳐 알을 품었다는 <금계 포란> 의 명당이었습니다. 어느 지관이 그렇다고 지목했다네요.

저같이 평범한 사람의 눈에는 그저 부드럽고 평화스러워 보였습니다. 그의 초막에서 찢 고구마를 먹으며 송 사장으로부터 이곳에 나무를 심는 사람이 된 뒷얘기를 청해 들었어요.

저는 처음에 나무숲이 된 이 땅은 넉넉한 부모가 물려준 유산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송사장이 부친인 한밭대학의 송영준 교수와 뜻을 같이해 세운 것이었습니다. 두 분은 후대를 위해서, 고향에 나무 심고, 도서관을 짓는 꿈을 꾸었는데 문제는 땅이 없었대요. 몇 년간 조각 땅을 사 모았어도 턱없이 부족했답니다. 그러다 2000년 초에 10만 평의 그럴듯한 땅이 매물로 나와 송 사장은 서울 아파트와 부동산을 모두 팔았고, 당시 65세인 부친도 전 재산을 매각해 기어이 그 땅을 샀답니다. 그런데 이 땅 근처로 서울 수색에 있던 국방대학원이 옮겨지고, 국방대학원용 골프장이 송 사장 농장과 길 하나 사이 두고 이달에 오픈한다니 송 사장이 이름 붙인 ‘송국농원’은 역시 좋은 땅이었나 봅니다.



여의도 MBC 남문에 있던 단풍나무

땅값이 얼마나 올랐을까? 내심 속된 생각을 하며 나무숲으로 바뀐 주변을 보는데 어디선가 본 듯한 단풍나무 한 그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송 사장, 이 단풍나무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송원근 사주가 나섰습니다.

“1999년도 5월쯤일까? 시골 가려고 MBC 남문으로 나오는데 뽁뽁한 영산홍 사이로 단풍나무 새끼 청단풍 한 그루가 숨죽이며 자라는 게 보였어요. 그걸 볼펜으로 판 주변 흙과 함께 팩에 넣어서 논산 고향의 화단에 심고 5년간 세밀히 관리했지요. 높이가 1m가 됐을 때 여기로 옮겨 심었죠. 여름에 푸르디푸르다가 가을이 되면 어느 단풍보다 붉은 우리 회사의 예의 그 단풍나무 자태와 비슷하지요?”

송 사장은 그 단풍나무의 잎새만큼 수많은 사연을 간직한 그때의 사우들은 지금 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머물고 있는지 추억하는 듯했습니다. 단풍나무 주변은 온통 나무숲이었습니다. 숲의 나무마다 세월의 웅이 박고 봄의 새순을 올리면서 상큼한 숲 향기를 품어 저를 유혹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나무가 무성한 야산 오르막 산등성이를 따라 올라가고 있던 저는 어찌 된 일인지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기억이 뚝~ 하고 끊기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송 사장이 뒤돌아보니 제가 두렵게 쌓인 낙엽에 미끄러져 기절했고 코와 귀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대요. 송 사장은 즉각 경찰에 신고하고, 119를 불러냈답니다. 호흡이 흐려진 저를 살리려 인공호흡을 시켰고요.

119 요원은 제 딸에게 전화를 걸어 제 머리를 열고 수술할지 모르니 내려오셔서 보호자 동의에 서명해야 할 듯하다 해서 제 딸이 기겁했다네요. 다행히 서울서 치료받기로 하고 개인 엠블런스를 타고 여의도성모병원으로 가는데 하필 엠블런스가 고속도로에서 펑크가 난 겁니다. 엠블런스가 펑크가 나다니...차를 바꿔 타고 가족들 애간장 태우며 겨우 5시간 만에 여의도성모병원에 도착한 저는 CT 촬영을 다시 하고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외상성 뇌출혈> 진단이 나왔답니다.

정신이 오락가락 하면서 여기가 어디냐? 나가겠다고 떼를 쓰는 바람에 병원측에서 저의 양손에 장갑을 끼우고 사지를 침대에 묶었습니다. 저를

방문한 경찰의 질문을 받고 대답도 했고 양영철 회장님, 장명호 전 회장님도 급히 연락받고 다녀가셨다는 데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다음 날인 가, 가족들이 와서 인사하던 때부터 기억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밤늦게 기습적으로 송 사장을 만나서 행복했어요. 송 사장과 저는 생사 갈림길서 맺은 인연을 죽을 때까지 함께하기로 다짐 했어요. 나무가 숲이 되면 부엽토가 쌓이고 부엽토는 빗물을 저장 했다가 조금씩 개울물로 흘러보내고 개울은 시냇물로 흘러 온갖 금수(禽獸)가 모여 드는 낙원의 원천이 되겠지요. 부러운 송 사장님, 대박 내셔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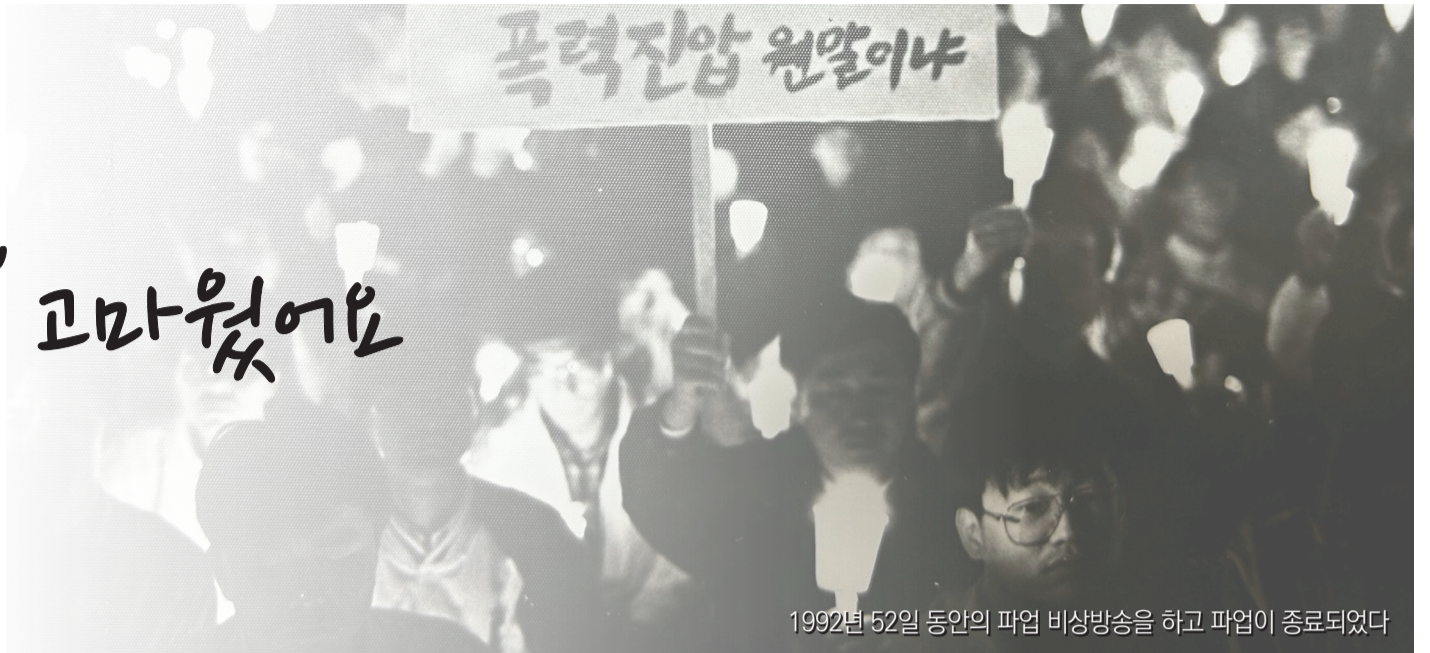
70살이 넘으니 사는 게 아슬아슬하네요. 저는 사고 나기 전인 지난 2월 말 난생처음 간병인보험과 실손보험을 들었어요. 보험료 단 한 번 내고 신세지니 미안하네요. 한화생명 감사합니다. 꽤 끼쳐 미안합니다. 혹시 안 드셨다면, 간병인보험도 살피셔요, 괜찮네요, 그래도 절대 아프진 마시고요.

찬란한 슬픔의 농장 다녀오니, ‘죽음 속의 삶’을 사는 기분입니다. 죽음과 삶이 뒤엉켜있는 거 같기도 해요. 119대원 여러분, 의료진, 간병사. 기도해 주신 모든 분, 걱정해 주신 분, 연락 안 하셨어도 그 마음 어찌 모를까요. 모든 분, 특히 주님 감사드립니다. 한 번 더 기회 주셨으니 귀하게 살게요, 저는 성모님과 함께 한답니다. 아침마다 불비법입니다. 행복합니다.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김승월(편제)

■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부장님, 그때 참 고마웠어요



1992년 52일 동안의 파업 비상방송을 하고 파업이 종료되었다

방송작가 김 성

1992년 어간의 기억이에요. 당시 작가 초년생이었던 저는 MBC 라디오의 L 부장님이 맡았던 한 FM부에서 프로그램 원고를 쓰고 있었죠. 부장님은 자리에 앉아 자투리 시간이면 한 손에 책을 들고 독서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늘 넥타이를 맨 정장 차림에 한 손에 책을 든 남자, 학구적인 분이셨죠.

“며칠 안 걸릴 거야.” 담당 PD인 C 형은 노조의 파업이 결정되자, 그 말을 남기고 사라지셨어요. 6.25사변 때 피난하던 사람들이 전쟁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듯이 말이죠. 그러나 전쟁처럼 파업은 의외로 길어졌고, 파업으로 자리를 떠난 PD의 빈자리를 대신하게 된 저 같은 작가는 원고 쓰라, 출연자 섭외하랴, 전화 연결하랴, 노래 선곡까지 크고 작은 일을 해결해야 했어요.

날마다 생방송을 해야 하는 라디오는 프리랜서 DJ가 있으니 외나무다리를 걷는 듯 불안하게 방송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저와 프로그램 같이하던 DJ, Y씨는 웬지 힘없는 저를 달달 볶기 시작했어요. ‘원고가 이게 뭐냐? 이걸 선곡이라 했느냐? 당장 가서 새로 나온 음반 찾아와라!’ 했어요. 저는 이리 뛰고 저리 뛰느라 매일 파김치가 되었지요.

당시는 LP 음반을 틀던 시절이라 음악 선곡에도 한계가 있었어요. 음악을 폭 넓게 틀고 싶어도 LP음반을 대량으로 대출받으면 너무 무거워서 들고 올 수도 없었어요. 하야간 최신 LP 수십 장을 여분으로 준비해도

Y는 제가 여전히 못마땅한 듯이 음악 운운하며 계속 트집을 잡았지요.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사정은 비슷한 처지였고 음악을 틀어야 해서 제가 원하는 LP 음반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 그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제게 불만을 터뜨렸던 거지요.

파업이 한 달이 넘어갈 때, 그의 지칭구는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보자 보자 하니까 너는 형의 지시를 무시해, 왜 그러는 거야? 하기 싫으면 관두든가?” 그런 말을 들으니 서러움이 목젖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그때였습니다. 부장님이 오셔서 “무슨 일인데 그래요?” 하고 Y씨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Y씨가 저를 일러바쳤습니다. “부장님, 애는 음악 선곡도 대중적이고 좋은 음반을 빌려 놓지도 않습니다.”



늘 1위. MBC 표준 FM (MBC라디오)

그러나 L 부장님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내가 매일 지켜봤는데 이 사람은 새벽부터 나와서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니면서 원고도 쓰고 선곡도 하고 출연자 섭외도 해요.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어요.”

부장님의 말씀에 이상한 눈치를 채 그가 어물거렸습니다. “에에? 부장님 그제 아니고 선곡이 너무 감이 떨어져서...” 그가 말꼬리를 흐리자 부장님은 “선곡이 그렇게 불만이면 Y 씨가 일찍 나와서 하든가 남아서 하든가 직접 하세요. 본인은 손 하나

까다하지 않으면서 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잡아요?”라고 지적했습니다.

부장님은 책을 보면서도 그 너머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셨던 거죠. 부장님 덕분에 저는 그와 어물쩍 화해했고 52일간의 파업 비상 방송을 마쳤습니다. 파업 마지막 날, 경찰이 방송사에 들어와 조합원들을 강제 연행해 갈 때 저는 그동안의 서러움이 북받쳐 펄펄 울고 말았습니다.

사내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수많은 일상의 행동들 하나하나가 머릿속을 스쳐갑니다. 그중에서도 나이 어린 저한테 반말 한번 하지 않았던 부장님의 인의(仁義). 그때 정말 고마웠습니다. 지금도 그 시절이 생각나면 저는 그저 고마운 마음이 들고, 옅힌 속 내려가듯 상쾌한 기분이 듭니다.

파업 비상시국에서도 조용히 흐르는 강물처럼 부서의 갈등과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는 부장님의 모습, 정녕 잊을 수 없습니다. 말수가 적으시고 독서를 즐기는 조용한 성품의 부장님, “비상시국에 고생이 많습니다.”라고 우리를 격려하시곤 하셨지요.



전국의 귀를 모은 시그널 ON AIR

당시 파업 기간이라, 고양이가 손이라도 빌릴 다급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저와 같은 애송이 작가가 감당할 수 없는 비상 이상의 상황, 저는 물론 출연진까지 동원해야 하는 초 비상시국이었지요. 제가 만약 그런 이야기를 꺼내면 아마 L부장님은 ‘조금도 내놓을 만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보나 마나 손사래 치실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그때의 일이 선명하게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제의 일보다 오래된 과거의 일이 더 또렷하게 떠오른다더니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 라디오 작가로 일을 할 때 저는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원고 마감에 쫓기고 게스트 섭외에 실패하면 죄책감이 밀려오고 청취율이 떨어질까 봐 밤마다 걱정했지요. 그때 제 곁에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중심을 잡아 주시던 분.

언제나 제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이름, MBC

한 사람을 존경하게 되는 데엔 이유가 많겠지만 저에겐 단 하나만 충분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믿어 주는 사람. 그런 리더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MBC가 거친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탱해 나가는 힘은 아마 L 부장님을 포함한 방송의 거인들, 사우회 전체 회원님들이 축적해 놓은 따듯한 보살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언제나 제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이름, MBC, 문화방송, 빛의 메아리~



라디오 역사를 만든 MBC

이제야 말할 수 있게 되었네요.

사우에세이

윤리학 「개론」



1. 별난 부인(婦人)

일곱 달 전. 제가 사는 시골 마을 옆 집에 중년 부인이 이사 왔습니다. 부인은 시루떡을 접시에 들고와 첫인사를 나누고 마당 구석에서 요란하게 짚는 개를 눈여겨보더니, “어머.. 진돗개네요. 여자인가보네.. 이름은요? 한 세 살쯤?” 하고 궁금한 걸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진이...손녀가 지은 이름이에요. 여자이고 네 살됐네요” 무슨 조항속인지 으르렁대던 ‘진이’가 꼬리를 흔들고 부인의 손바닥을 핥으며 아양을 떠는 것이었습니다.

보면 볼수록 ‘별난 부인’이었습니다. 개, 고양이를 합쳐 10여 마리를 마당에 풀어 놓고 기르는 건 그렇다 쳐도 음악이 동물들에게도 좋다면 종일 피아노 연주 녹음을 틀어 놓았습니다.

2. 날벼락

11월 중순 킁킁한 새벽. “끼잉..끼잉...” 뒷 뜰에서 간헐적으로 이어지는 동물의 기이한 신음이 들렸습니다. ‘진이’ 소리인가? 무슨 일이? 부리나케 뛰쳐

나갔습니다. “아..이럴 수가...”뜰밭 뒤에 희미한 실루엣으로 드러난 것은 꿈무늬가 붙은 채 킁킁대는 두 마리 개였습니다. 플래쉬 불을 비춰 ‘진이’의 상대 수캐를 본 순간 “웁!”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 마을 토박이 영감 최 씨네 잡종 개. 목줄도 없이 동네 여기저기를 쿵쿵대며 이웃들 집을 주던 시커먼 비호감, 그놈이었습니다.

“개 좀 묶어 놓으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듣더니 이런 사달이 난거 아니요? 이거 어떻게 할거요?” 최씨는 흘깃 노려보더니 외려 언성을 높였습니다. “개가 지네들끼리 그러는 거 왜 나한테 뭐라 해요? 그리고 남의 개를 왜 때려요? 그거 동물 학대 아녜요?” 사과하는 커녕 거꾸로 이쪽 잘못이러니.

3. 불륜(?)의 강아지 새끼들

눈 덮인 산등성이를 석양이 붉게 드리운 모습이 처연해 보던 지난 1월 17일. ‘진이’가 반갑지 않은 새끼 네 마리를 낳았습니다. 손바닥 절반 크기나 될까. 하나는 진돗개 어미를 닮아 하얗고 셋은 잡종 개를 닮아 까맣습니다. ‘진이’는 새끼 넷을 밤낮 핥고, 넷은 한 덩

어리로 뭉쳐 오물조물 짚을 빨고...그 걸 보니 착잡해졌습니다. 오지랖 넓은 박 할머니를 찾아가 마을에서 강아지 기르겠다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음... 분양이 안되면...개장수한테 넘깁시다. 내가 아는 개장수가 있으니까...하기사 방법이 제일 깔끔하겠어” “에...? 개장수? 잡아다가 도살하는 거 아녜요?”

“돼지고기, 개고기 다 그렇게 잡아서 먹는 건데 뭘... 그렇게 합시다! 자, 그럼 모레 아침에 봐요!”

4. 반전(反轉)

장날 D-1. 늙은 푸들을 이른바 ‘개모차’에 태우고 문밖을 나서는 별난 부인과 마주했습니다. 저간의 사정을 들은 부인은 개장수 대목에선 기함(氣陷) 직전까지 갔고 분을 못 참았습니다.

“할머니 얘기는 절대 듣지 마시구요. 시장에도 가지 마세요. 제가 어떡하든지 분양받을 분을 구해 볼게요. 만약 안 되면 제가 맡아 기를게요...잡종이 무슨 천가요? 요새는 잡종이 아니라 ‘믹스견’이라고 해요. ‘믹스견’이 얼마나 귀엽고 건강하고 푹푹한데..

“저번에 할머니가 강아지들 보고 ‘불륜의 씨’라고 해서 정말 웃기고 기가 막혔어요... 개 한테 불륜이니 윤리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연 속에서, 이치대로 살 뿐인데”

“.....” 이튿날 아침. 옆집 그 부인으로부터 낭보(朗報)가 날아들었습니다. “강아지들 기르겠다는 지인들을 찾았어요! 이제 모두 살았어요!”

5. 별난 남자

계절이 한 바퀴를 돌아 봄이 되어 쌓였던 눈이 녹고 담장 너머에서 옆집 별난 부인의 들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아지들이 새로 간 집에서 무럭무럭 잘 크고 있대요. ‘진이’ 데리고 한번 안 가실래요? 여기서 안 멀어요.”

“아... 그래요? 참 고맙네요. 그런데...좀...생각해 보구요..”

돌이켜 보니 부인은 ‘별난 부인’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잡종의 고정관념이 뿌리 박혀 있는 ‘별난 노인’이 그 옆집에 있었던 거였습니다.

김승한(보도)

경조사항

Table with columns for names, titles, and dates of obituaries. Includes names like 김부영, 김일수, 강철호, 임주완, 백명순, 이석일, 이경환, 이성근, 양재철, 이성수, 박우성, 홍종선, 박화진, 김호석, 정종국.

Table with columns for names, titles, and dates of obituaries. Includes names like 박영달, 김현경, 김관중, 최종라.

연회비

Table listing names and titles of members who have paid their dues. Includes names like 권태일, 홍신숙, 김병환, 강현식, 이영호, 강복주, 이재명, 김억동, 고주룡, 강유현, 김종창, 조은국, 이오기, 조규보, 이승재.

주소변경/신규

편 제 : 김환균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무내1길 (수향리)
박경삼 경기 파주시 운정중앙로 246 (다울동, 운정자이퍼스트시티)
보 도 : 권태일 경기 광명시 안재로 14번길 (하안동)
고주룡 인천 연수구 해송 30번길 19 (송도동, 웰카운티송도3단지)
김병환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미래로 2 (남가좌동, DMC파크뷰자이)
기 술 : 이재명 인천 서구 청라한울로 95 (청라동, 청라제일풍경채)
양운수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소사로 78번길 70 (소사본동, 주공아파트)
관 리 : 손원록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300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중성(대구) 2024년 5월 10일 별세, 향년 81세. 1968년 대구MBC입사 대구문화방송 총무국 근무 *따님이 뒤늦게 연락



이명세(관리) 2월 7일 별세, 향년 85세. 1976년 입사 총무부 근무 파주시노인회장



송재익(ANN) 3월 19일 별세, 향년 83세. 1970년 ANN입사 스포츠 중계담당 방송위원 올림픽, 월드컵 개최, 개막, 복싱 등 주요 경기 중계



노영일(보도) 3월 26일 별세, 향년 87세. 1964년 기자 입사 본사 보도국장, 워싱턴지사장, 보도이사 원주문화방송 사장 역임

/회/원/동/정/



고주룡 회원,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실장 임명
고주룡(보도) 회원이 지난 3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실장으로 임명됐다. 고주룡 회원은 보도국 경제부장, 베이징 특파원, 논설위원, 통일방송연구소장 등을 역임했으며 2022년 제20대 대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인천광역시 대변인, 비서실장 등을 거쳤다.

문기회원 영광원전 견학

문기회(회장 조기양)와 한국방송기자클럽 회원 등 50여 명은 3월 25일 전라남도 영광에 있는 한빛원자력발전소 현장을 견학했다. ‘한빛에너지팜’ 대강당에서 원전 현황과 발전소 내부 시설을 둘러보는 일정이었다.



사우에세이

내가 열망했던 산티아고 순례길의 시간들

혼자서 33일간 778km의 길고 긴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오고서야 비로소 알았다. 나 자신과 수많은 대화를 주고받으며 걷는 동안 여정의 중간 어디쯤에서 힘들거나 즐거웠던 모든 순간이 나 아닌 다른 모든 사람과 함께 만들어지는 것일 뿐, 나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는 각성이 일었다.

산티아고 순례길 완주를 끝내고 귀국한 날 1km당 만 원씩 778만 원을 심장병 어린이를 위해 기부함으로써 이번 여행이 내게 준 각성의 증표로 삼았다.

퇴직 후에 떠나려고 했던 내 버킷리스트의 산티아고 순례길은 새 직장이 생겨 3년을 흘러보낸 끝에 겨우 지난 2월 실행에 옮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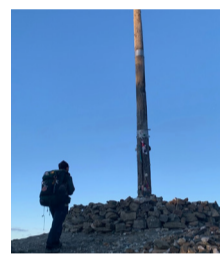
떠나기 전에 매일 수영하고 동네 뒷산을 올라 체력을 키웠다. 휴가 때 제주 올레길을 3일~5일씩 쉬 없이 걸어보고 비 오는 날이면 판초 우의에 12kg의 배낭을 메고 동네 둘레길을 걸었다.

장거리 도보 여행의 최대 적은 배낭

무게다. 오래 걷다 보면 손가락조차 무거워서 버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았던가? 중량이 주는 압박은 오로지 준비물의 경감으로 채워야 했다. 하지만 12kg 이하로 줄이지 못했다. 순례길에서 만난 사람들은 내 배낭의 무게를 걱정했다. 순례길의 배낭 무게는 자기 몸무게의 10% 내외인데 내 배낭은 그것의 2배 가까운 12kg이 나갔으니까.

매일 25km씩 걷다 보면 각국에서 온 순례자들을 만나 동행하게 되고 그들의 사연도 듣게 마련이었다. 출발 첫날 프랑스의 생장에서 만난 헝가리 친구 라벤다, 상처(喪妻)로 애잔했던 모습에

마음이 아팠다. 순례길에서 만나는 200여 개의 작은 마을과 4개의 대도시마다 이층 침대를 4개~6개를 갖춘 공식 숙박업소, 알베르케가 있는데 그곳에서 잠을 자야 한다. 지역에 따라 크기가 천차만별이지만 보통 8명



~12명(남녀포함)을 수용한다. 다만 샤워장이 부족해 10명이 한곳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나는 아침 식사를 사전에 구해 놓은 시리얼과 요플레, 바나나 등으로 먹었고 알베르케에서 직접 익힌 삶은 달걀을 비상식으로 가지고 다녔다. 점심은 마을의 간이 음식점인 "Bar"에서 스페인 보카디요(Bocadillo) 샌드위치와 커피로 해결했다. 다만 이런 점심은 운이 좋아야 먹을 수 있다. 대개 식당 문이 닫혀 있으니까. 그래서 비상식 2끼를 늘 배낭에 챙겨서 걸어야 했다.

출발 6일째 되는 날 밤, 자다 깨어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는데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았다. 겁이 덜컥 났다. 이대로 주저앉으란 말인가? 아니다. 그럴 순 없다. 나는 스트레칭을 하며 이를 악물고 버텼다. 발바닥에 손바닥만한 물집이 잡히는 바람에 병원에 가야 했지만 도보 20일째 되는 날 증상은 저절로 치유되고 러너스 하이(runner's high)의 희열, 상쾌함과 행



복감이 찾아왔다.

산티아고 대성당 콤포스텔라에 도착한 마지막 날 오전, 광장에서 완주증을 받고, 12시 미사에 참석해 모든 여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두 눈가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린다.

기쁨의 눈물, 마침내 해냈다는 성취감의 증거, 가슴에서 샘솟아 오르는 뿌듯함을 아무나 붙잡고 나누었으면 싶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가족들과 친구들의 얼굴, 그들이 갑자기 보고 싶어지고 나는 완전히 새로 태어나 있다는 느낌이 왔다. 바닥에서 일어섰다.

하늘과 땅, 온 세상과 사람들이 모두 나를 향해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는 듯 했다. 이원형(기술)

사우회 가입을 환영합니다



권태일(보도)
1987년 입사
보도국 영상편집부 근무
보도국 영상편집부장



이재명(기술)
1992년 입사
중계부, 영상기술부, 기술기획부, 송신소 송신부장, 총무부장, 정보콘텐츠부장, 디지털기술국장



고주룡(보도)
1991년 기자 입사
보도국 경제부장, 베이징특파원, 통일방송연구소장
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홍보실장



김병환(보도)
보도국 영상편집
여의도/상암 NPS 시스템 구축
통일전망대 제작

발전 기금을 주신 분들 (3월 28일 이후)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mbcsau.com>)에 있습니다



양영철(회장) 500만원



윤건호(편제) 100만원



윤영무(보도) 50만원



차효석(대전) 10만원



김재형(관리) 10만원



조규보(관리) 10만원



정광수(기술) 10만원



이명 10만원

발전기금 납부 계좌 : KEB하나은행 158-890070-29405 MBC사우회

신간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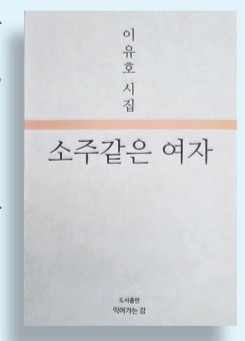
『분열자의 산책』 - 시인 김재홍 사우의 첫 번째 비평집

2003년 중앙일보로 등단한 시인이자 평론가인 김재홍 사우의 첫 현대문학 비평집이 나왔다. 저자는 이 책에서 화이트 헤드와 들뢰즈 등 19~20세기 현대 철학자들이 주목한 현대 시 평론에서부터 천양숙 등 국내 시인들이 지난 10년간 발표한 시집을 깊이 들여다보고 있다. 문학은 절대적 진리와 고착된 규범 안에서 태어날 수 없다는 저자는 자신의 비평집 또한 탄생이 곧 종말이 되는 순간들의 기록이라고 말한다. 광산에서 금을 캐듯 「분열되지 않으면 창조는 없다」는 우주 법칙을 캐는 재미가 쏠쏠하다.



『소주 같은 여자』 - PD시인 이유호 사우의 시집

30년 TV-PD 편력과 《월간순수문학》 신인문학상을 받은 시인 이유호 사우가 자신의 생애 첫 번째 시집, 『소주 같은 여자』를 냈다. "...새끼 고양이가 애미 품에 안겨 젖을 빨아 먹는 것처럼 남자 품을 파고 들어가는 여자...", "남자의 거시기가 팔뚝에 달렸다면 좋겠다"고 그는 통속적인 생활언어를 유머러스한 일상의 시어(詩語)로 녹여낸다. 시청자를 울고 웃게 만든 PD의 재주가 시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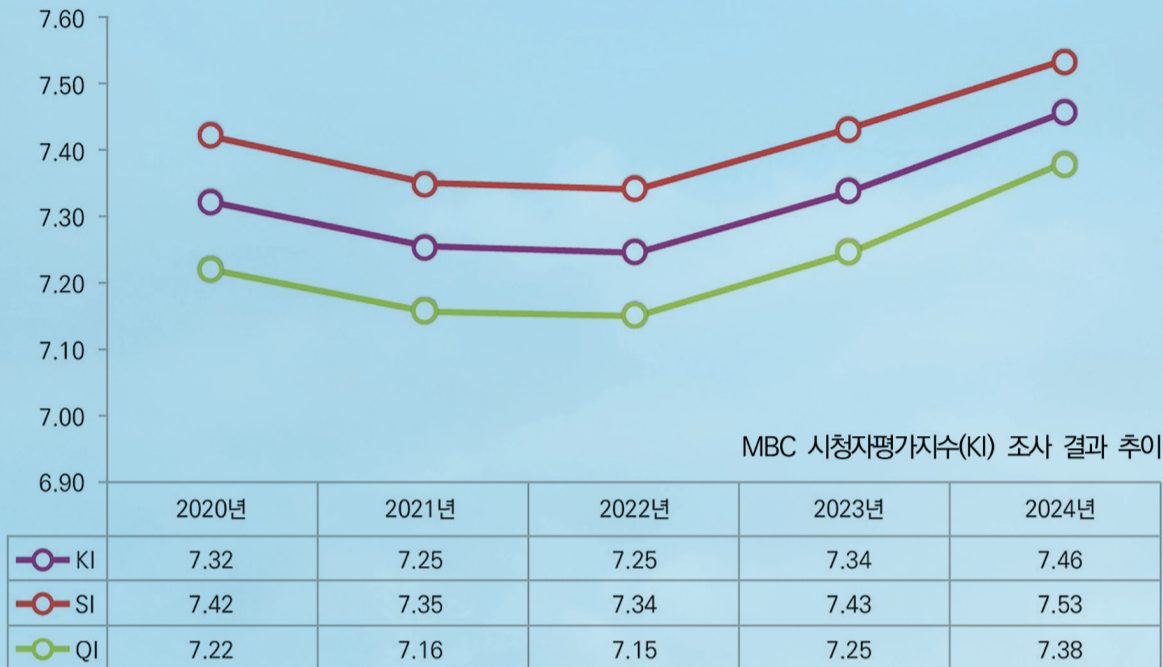
정동레터

♥ 네에?...출장 인터뷰를 떠나신 김승일 편집장의 사고 소식이 들려왔다. 처음엔 경미한 정도로 예상했으나 상황이 그리 녹록하지 않아 결국 김 편집장님을 쉬게 해드리기로 편집부의 결정이 있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편집부 류근중)
♥ 부랴부랴 새 편집장님을 맞았다. 윤영무 사우 는 '뉴스데스크-1원의경제학'으로 방송대상, '대한민국에서 장남으로 살아가기' 등을 출간한 바 있는 출중한 분이시다. 좋은 콘텐츠의 아이디어가 많으셔서 기대가 커진다. (편집부 정은숙)

♥ 4.5월에는 행사가 많아 사무처가 바쁘다. 특히 류근중 사무처장, 이종태 국장의 수고가 눈에 보인다. 인원모집, 연락, 진행 등... 뭐라도 해야할 것 같은데 "강 참여해 즐기지만 하면 된다"고 애써 수고를 감당한다. 참 일 잘하신다
♥ 내 곁에 없으면 사랑아니지. 멀리 있으면서 말로만 하면 못믿어요. 두말하면 잔소리. 가장 중요한 말은 한글자. 꿈, 물, 흥, 돈, 밥, 맘..... 그 중에서 제일은 곁이라. 사보 곁에 있을게요~~
편집부 윤영무

시청자가 직접 선택한 MBC

2024 KI 시청자평가지수 조사, 압도적 1위



채널성과평가 7개 중 6개 항목도 최고점
 신뢰성 · 유익성 · 공정성 · 공익성 · 흥미성 · 다양성
 질적평가에서도 지상파 · 종편 가운데 단연 1위

**방송통신위원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공동조사
 시청자 48,000명이 직접 평가**

